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는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하는가? 우리는 프로이트의 연구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신체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하여 항상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는 신체 내부의 변화로 인해 정신의 안정상태가 붕괴될 때, 정신이 다시 이전의 정신적 상태로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활동하여 달성된다. 이렇게 신체와 정신 사이에서 신체의 항상성 회복을 위한 요구를 정신이 활동하는 자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능’이다.

프로이트는 본능을 타나토스와 에로스로 ㉠ 나누었다. 타나토스는 유기물을 죽음으로 이끌려는 보수적인 본능이고 에로스는 항상성을 회복하여 생명을 연장하려는 본능이다. 이중 타나토스의 대상이 내부가 아닌 외부 세계로 돌리지면 이는 파괴 본능으로 발현된다. 이 때문에 에로스는 세포들 안의 타나토스를 부분적으로 중화시키려 하며, 생명 최초의 탄생에서부터 그 둘은 대립적이었을 것이다. 이 구도에서 에로스는 리비도를 통해 타나토스와 경쟁하며 신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신활동으로 인한 리비도의 만족은 정신의 항상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 역시 회복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와 정신 사이에서 정신에게 활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본능은 이드(Id)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정신의 어떤 기관 개념이다. 이드 안에 가득 차 있는 본능은 정신적인 항상성 회복력이고, 리비도는 그 가운데 정해진 목표를 가지고 발현된 본능적 에너지를 ㉡ 말한다. 하지만 쾌락에의 추구가 항상 현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인 에고(Ego)는 현실원칙을 따라 행동한다. 쾌락 추구를 버리지는 않으면서도 현실적 타협을 하는 것이다.

신체 기관이 성장함에 따라 본능 역시 변화한다. 어린 시절 인간의 리비도적 요구는 그들이 자타의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내부 세계에 ㉢ 머무른다. 하지만 에고가 형성되어 타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된 아이는 리비도의 만족을 위해 점차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아이는 리비도의 만족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이 갈등의 시기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불렀다. 어린아이가 일정 시기가 되면 이성의 부모를 성적으로 사랑하고 동성의 부모를 경쟁자로 느끼게 되는데, 이를 소포클레스의 극작품을 인용하여 재치 있게 설명한 것이다. 이러한 오이디푸스적 갈등은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해결된다. 유아적 성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 슈퍼에고(Super-Ego)가 탄생하는 것이다.

(나)

정신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프로이트의 공헌이 크다. 사람들의 정신작용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둘은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무의식 안에 억압된 수많은 갈등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이 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그의 임상 활동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생각이 언제나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융과 프로이트의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리비도의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이다. 융은 리비도가 반드시 성적 특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리비도는 인간의 모든 동기, 욕망, 의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근친상간적 꿈 역시 그의 틀에서는 부모의 보호막으로 돌아가려는 안정의 지향이었다.

근친상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은 리비도의 퇴행에 대한 융의 생각과 관계가 깊다. 프로이트는 현실에서의 좌절은 리비도의 퇴행으로 인한 무의식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무의식의 활성화는 금지된 소망들, 이를테면 오이디푸스적 환상에 다시 에너지를 공급한다. ㉣ 이는 에고에 있어서 불안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발현된 것이 신경증이다.

그러나 융은 리비도의 퇴행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퇴행한 리비도가 끄집어내는 것들은 비도덕적이고 기괴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창조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즉, 융은 정신질환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목적적 의미를 ㉤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융의 해석에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독특한 아이디어가 기반이 된다. 개인적인 콤플렉스로 구성된 프로이트의 개인무의식과 달리, 집단적 무의식은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무한히 초월하며, 인류의 집단적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주 꾸는 꿈의 주제나 적극적 상상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공통된 환상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 말했다. 프로이트와 융은 모두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로 여겼지만, 꿈을 해석하는 방식과 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본능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나)는 본능 개념의 정의를 비판하였다.
- ② (가)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소개하였고, (나)는 프로이트가 융의 이론을 비판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 ③ (가)는 자아의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을 검토하였고, (나)는 무의식 개념에 대한 여러 학설을 검토하였다.
- ④ (가)는 자아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고, (나)는 두 철학자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하였다.
- ⑤ (가)는 특정 이론의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제시하였고, (나)는 그 이론의 특정 평가를 비판하고 있다.

**2. (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체적인 충동이 심리적 충동을 거쳐 드러나는 본능은 초기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향의 표출이겠군.
- ②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는 쾌락원칙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겠군.
- ③ 본능은 탄생한 이후 타나토스와 에로스로 분화하며, 각각은 서로를 제거하려 경쟁하겠군.
- ④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리비도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지칭하겠군.
- ⑤ 이드는 에고와 달리 자신과 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겠군.

**3. (가)와 (나)를 고려할 때, 프로이트가 ㉠이라고 주장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오이디푸스적 사랑은 에고의 고유한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② 퇴행에 따른 리비도의 변형은 주체로 하여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③ 억제되어 왔던 슈퍼에고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었던 이드가 억제되기 때문이다.
- ④ 다양한 발전의 가능성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에고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 ⑤ 이드의 지향과 슈퍼에고의 지향이 충돌하여 에고의 내적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4.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음의 ㄱ~ㄴ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ㄱ. 자아는 단지 의식 영역의 중심일 뿐, 나의 정신 전체와 동일하지는 않다.
- ㄴ. 욕망 혹은 욕구로서의 리비도의 개념의 바탕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른다.
- ㄷ. 신경증 증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자의 성생활이다. 비슷하게 꿈에 나타나는 상징의 압도적 다수는 성적 상징들이다.
- ㄹ. 내적 세계의 조건들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퇴행은 개성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생명의 필요로부터 솟아나온다.

- ① 프로이트는 ㄱ과 ㄴ에 동의하겠군.
- ② 프로이트는 ㄷ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③ 프로이트는 ㄱ에 동의하고,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④ 융은 ㄱ과 ㄹ에 동의하지 않겠군.
- ⑤ 융은 ㄴ에 동의하지 않고, ㄷ에 동의하겠군.

**5.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J가 꿈 아래의 꿈에 대하여, 프로이트와 융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J는 꿈속에서 낯선 2층집에 있었다. 그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며 각 층의 모습을 관찰했다. 2층의 살롱은 로코코 양식의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는, 사람이 살 만한 공간이었다. 1층은 중세풍의 어두운 분위기였고, 붉은 벽돌 바닥이 깔려 있었다. 지하실에는 로마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튼튼한 벽과 돌계단이 나왔다.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는 선사 시대의 동굴이 있었다. 그곳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과 뼈, 그리고 두 개의 해골이 있었다.

**프로이트** : 꿈의 마지막에 있는 해골 두 개는 J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서입니다. J는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는 살의를 품고 있으며, 꿈은 그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융** : 꿈 속 해골은 특징인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꿈이 시작된 2층은 현재의 의식이라면 1층은 가까운 과거, 지하실은 깊은 더 이전, 그리고 동굴은 선사시대를 상징합니다.

- ① 프로이트는 J의 꿈에 나타난 두 개의 해골을 억압된 J의 이드의 쾌락적 충동과 연결지어 해석했다.
- ② 융은 J가 직접 경험했을 수 없는 선사 시대의 상징이 J의 꿈에 나타난 이유는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③ 융은 2층의 낯은 가구, 1층의 중세풍의 분위기, 지하실의 로마 시대 양식과 깊은 곳의 선사 시대 양식을 근거로 집을 인류의 과거 역사를 종합한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 ④ 프로이트는 융으로부터 꿈의 모든 것을 개인의 억압된 욕망으로 환원하려 했기에, 꿈이 보여주는 더 거대한 상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 ⑤ 프로이트는 꿈의 특정 이미지에 주목하여 억압된 원초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융은 개인적인 연상을 넘어 인류 보편적인 양식으로 꿈을 해석했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구분(區分)했다
- ② ㉡ : 총칭(總稱)한다
- ③ ㉢ : 국한(局限)된다
- ④ ㉣ : 발견(發見)하려
- ⑤ ㉤ : 설명(說明)했다

## 정답과 해설

### [참고 문헌]

정신의 성숙과정에서 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의미, 임선미(2018), 한신대학교 정신분석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프로이트와 융의 심층심리학 사상과 그 차이, 김성민(2016), 신학과 실천(Theology and Praxis)

#### 1. ④

[정답 해설]

- ④ (가)는 자아(에고)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였고, (나)는 프로이트와 융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가)는 본능의 개념을 정의하였지만, (나)에 그 정의를 비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가)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소개하였지만, (나)에는 프로이트가 융의 이론을 비판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융이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③ (가)는 자아의 기원에 대한 프로이트의 학설을 제시했을 뿐, 비교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 개념에 대한 프로이트와 융의 학설을 검토하였다.
- ⑤ (가)는 프로이트 이론의 평가 자체를 제시한 적이 없다. (나) 역시 프로이트 이론의 특정 평가를 비판하고 있지 않다.

#### 2. ②

[정답 해설]

- ② 3문단 하단에 따르면, 현실원칙은 쾌락 추구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에고에서 현실원칙이 쾌락원칙을 대체하긴 하지만, 이는 이드의 보호에도 기여한다. 3문단에 제시된 바와 같이, 쾌락 추구가 항상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육체적인 충동이 본능을 거쳐 정신적 충동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함수적관계
- ③ 본능이 분화한다는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분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리비도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이 겪는 것이 아닌 리비도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가 된 인간이 겪는 고통이다.

- ⑤ 에고는 이드와 달리 자신과 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선지이다.

#### 3. ⑤

[정답 해설]

- ⑤ (가)에 따르면 이드는 일종의 무의식이며, (나)에 따르면 무의식에 억압된 금지된 소망들은 리비도의 퇴행에 의해 활성화된다. 그런데 (가)의 하단에 따르면 그러한 금지된 소망들은 슈퍼에고에 의해 통제된다. 이 둘은 내적 갈등을 일으켜, 에고로 하여금 혼란과 고통을 겪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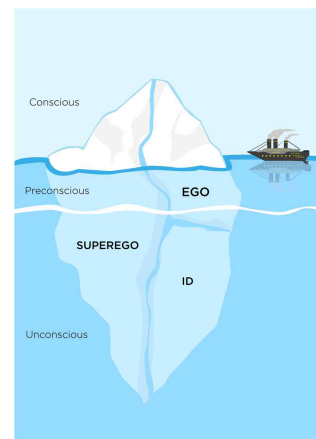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에고는 고유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실적인 차원에서 선택하고 활동할 뿐이다.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슈퍼에고이다.
- ② 리비도는 변형되지 않는다. 위치가 '퇴행'된 것이지, 그것이 질적 변화를 겪지는 않는다.
- ③ 리비도의 퇴행은 잠들어 있던 이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드가 억제되고 슈퍼에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 ④ 이는 프로이트의 입장이 아닌 융의 입장이다.

#### 4. ③

[정답 해설]

- ㄱ. 이는 프로이트와 융 모두가 동의할 진술이다. 둘 모두 에고가 마음의 전체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둘의 대립점은 무의식의 내용에 있어서이다. 참고로 이 표현은 프로이트가 한 말이다.



- ㄴ. 이는 프로이트는 동의하지 않고, 융만 동의할 진술이다. (나)에 따르면 융은 모든 리비도가 성적 특질만을 갖지는 않는다고 했으므로, 역으로 프로이트는 리비도는 성적 특질만을 갖는다고 주장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참고로 이 표현은 융이 한 말이다.

- ㄷ. 이는 융은 동의하지 않고 프로이트만 동의할 진술이다. ㄴ과 반대되는 진술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자. 참고로 이 표현은 프로이트가 한 말이다.
- ㄹ. 이는 프로이트는 동의하지 않고 융만 동의할 진술이다. 프로이트는 리비도의 퇴행을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봤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진술	프로이트	융
ㄱ	동의	동의
ㄴ	비동의	동의
ㄷ	동의	비동의
ㄹ	비동의	동의

## 5. ③

[정답 해설]

- ③ 융은 집을 인류의 역사 전체로 해석했을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꿈이 시작된 2층을 ‘현재의 의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낮은 가구’에 집중하면 틀릴 수 있는 선지이다. 참고로 <보기>의 J는 사실 융 본인이다. 1909년 융과 프로이트가 미국에 가기 위해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 융이 <보기>내용의 꿈을 꾸었으며, 배 위에서 둘은 꿈의 해석에 대해 논쟁을 했다고 한다. ‘다층집의 꿈’이라고 불리는 이 꿈은 두 사람의 이론이 대립하기 시작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따르면 프로이트는 무의식 안에 억압된 갈등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이드의 작용으로 설명된다.
- ② (나)의 하단에 따르면 융은 인류의 집합적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에 따른 개인 무의식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다.
- ④ <보기>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비판이다. 프로이트는 융과 달리 나머지 집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고로, 실제로는 배 위에서 프로이트와 융이 논쟁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융은 이후 저서에서 ‘이 때 프로이트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남겼는데,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했다기보다는, 굳이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 ⑤ <보기>에 나타난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를 정확히 진술한 선지이다.

## 6. ②

[정답 해설]

- ② ⑥는 단순히 한 대상에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총칭은 여러 대상들을 같은 범주로 묶어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어휘적 범주가 다르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③④⑤ 모두 바꾸어 쓰기 적절하다.